담당자: 오영균, 전화: 031-290-1665, e-mail: oh665@korea.kr



## 3 농산부산물 활용 섬유질 배합사료 기술 보급

사료가격 폭등으로 한우사육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섬유 질 배합사료(TMR) 기술을 개발 하였다.



## 농가 스스로 사료 배합비 작성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섬유질배합사료(TMR, total mixed ration)란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잘 섞어 급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특히,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미강이나 깻목, 버섯부산물, 비지, 맥주박 등의 농산부산물을 함께 섞어 먹이면 사료비를줄일 수 있다. 하지만, 한우는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고 부산물별로 영양소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농가에서 섬유질 배합사료를 만들 때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고 성장단계별 사료급여량도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농가에서 스스로 농산부산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배합할 수 있도록 과학적 영양·사양체계를 포함한 전산프로그램인 '한우 사양 표준 2009'를 개발하여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에 등재하고 교육동영상,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제작하여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 O 연간 농산부산물 생산량은 약 6,265천톤으로 사료화 이용 시 배합사료 1,714천톤 대체 가능
- 한우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 경영체 (자연채 600, 강소농 농가) 기술 지원
  - 한우 육질 1<sup>+</sup>등급 이상 출현율 : ( '09) 44% → ('11) 69 \* 전국평균 45%
- 경제적 효과: 연간 445억원, 유효기간 20년으로 총 8,897억원(이암허브 용역결과)



##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사료 제조 기술의 전국 보급 확산

지속적으로 한우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경영체의 역량 강화 및 권역별 선도농가를 발굴하여 기술보급의 거점농장으로 육성하고, 지역별로 활용 가능한 농산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센터 · 도 종축장 · 축협을 연계하여 현장접목 종합 컨설팅을 추진함으로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산부산물 활용 한우섬유질배합사료 기술 구축 체계